

제 목 코로나19가 미국 고용 및 가계금융에 미친 영향(II)*

* 연준이 9.18일(금) 발표한 「Update on the Economic Well-being of U.S. Households: July 2020 Results」의 주요내용을 정리

□ 연준은 2013년부터 매년 가을에 미국 가계의 경제상황(Economic Well-being)을 측정하고 잠재적 재무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「가계의 경제상황 및 의사결정 설문」(SHED: 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and Decision making)을 실시하여 다음해 초에 결과를 발표

○ 그러나 **코로나19** 사태로 최근 미국가계의 고용 및 재무상황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4월(4.3~6일)에 이어 7.17~27일중 추가설문*을 실시**

* 주요 설문내용

- 4월 : 고용 및 재택근무 현황, 유급병가 및 의료기관 접근성, 전반적인 가계재무상황 등
- 7월 : 고용 및 재택근무 현황, 코로나19 대응조치 효과, 전반적인 가계재무상황 등

** 2019년 정기설문조사 응답자(12,173명)중 총 4,174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

□ 주요 조사결과

① 일시적으로 실직했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이 4월 86%에서 7월 37%로 감소

- 실직자중 상당수가 기존 직장에 복귀(5%→30%)하였으나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크게 증가(7%→22%)

②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가계의 재무상황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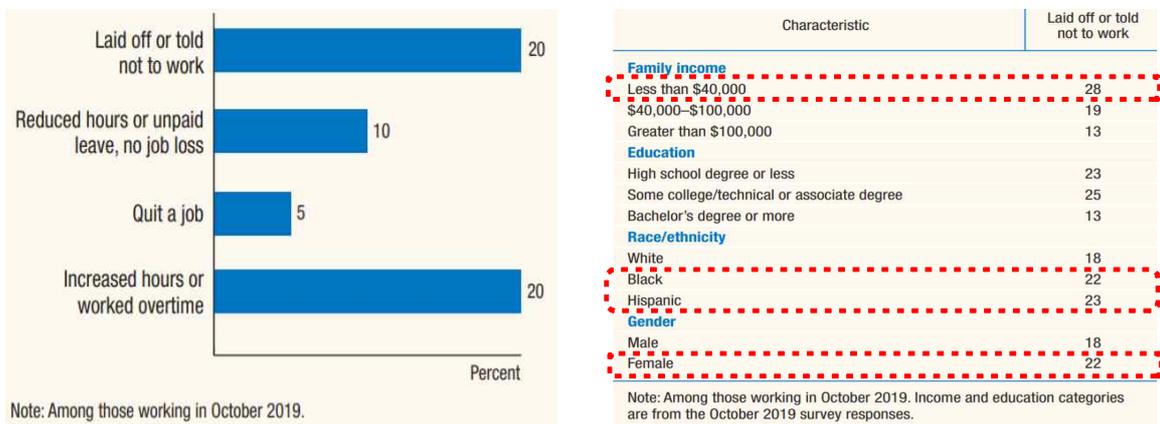
- 전체 응답자중 약 25%가 실업급여(11%),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(10%), 민간 자선단체의 식료품 지원(8%)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

③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고용증가와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등으로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**괜찮다**고(doing at least okay financially) 답한 응답자 비중은 소득, 인종,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모두 상승 (4월 72% → 7월 77%)

(고용 및 재택근무 현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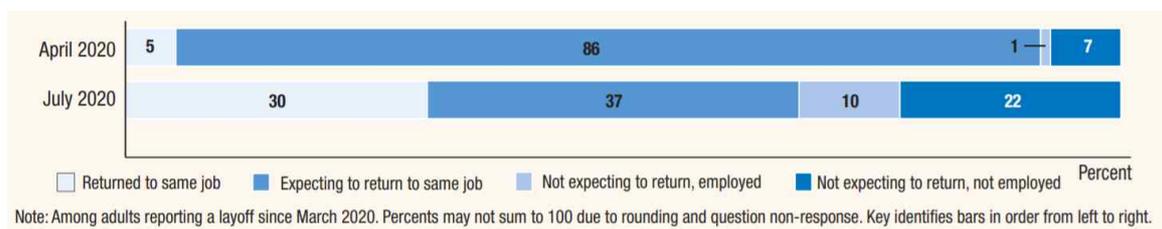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사태 전 취업중인 응답자의 20%가 3~7월중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변
 - 백인(18%)에 비해 히스패닉(23%)과 흑인(22%)이, 남성(18%)에 비해 여성(22%)의 실직비중이 더 높았으며, 특히 저소득층 가구(연소득 4만 달러 미만)의 실직비중이 28%로 높게 조사
 - 응답자의 10%는 근로시간이 줄었거나 무급휴가 중이라고 답변
- 반면 응답자의 20%는 근로시간이 늘었거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

2020년 3~7월중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



- 4월에 일시적으로 실직했다고 응답했던 근로자(86%) 중 상당수는 기존 직장으로 복귀했으나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크게 증가
 - 실직했다가 기존 직장에 복직한 응답자 비중은 4월 5%에서 7월 30%로 증가
 - 현재까지 실직중이며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 비중도 4월 7%에서 7월 22%로 증가
 - 한편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응답자 비중도 4월 1%에서 7월 10%로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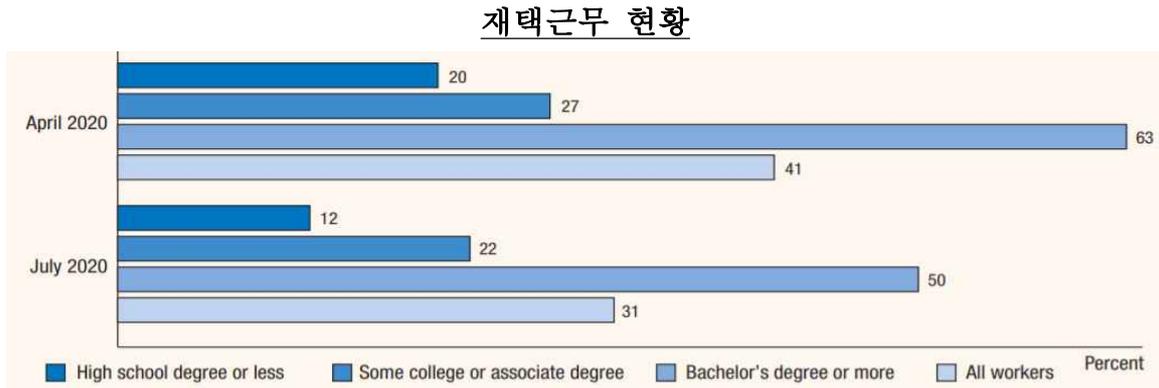
실직자들의 근로복귀 기대 변화



□ 재택근무 비중*은 4월 41%에서 7월 31%로 감소

* 조사기간 전주에 온전히 재택근무를 한 경우

○ 고학력자일수록 재택근무 비율이 높게 나타남



□ 다수 근로자들(약 3/4)은 고용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, 18%는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응답

○ 부정적인 답변은 흑인(27%)과 히스패닉 근로자(23%)에서 높게 나타남

□ 상당수 맞벌이 학부모들은 가을에 학교가 대면수업(in-person)을 하지 않을 경우 직장과 육아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

○ 이 경우 맞벌이 학부모의 3%는 일을 중단할 것으로, 19%는 더 적게 근무할 것으로 예상

○ 초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일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답변은 30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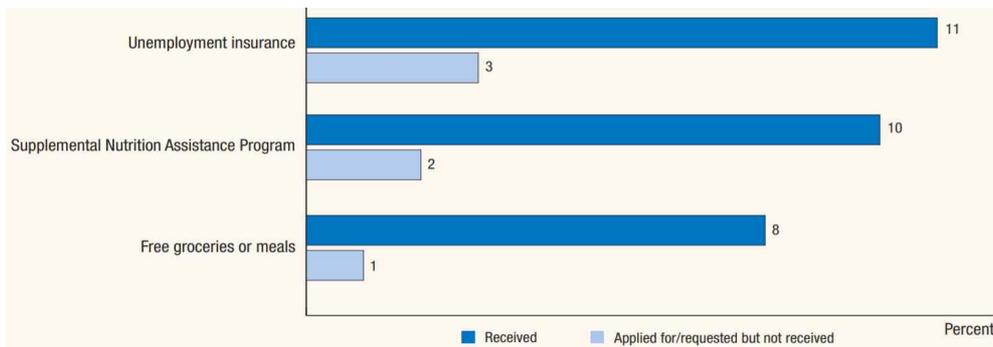
(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금융지원의 효과)

□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가계의 재무상황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전체 응답자중 약 25%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실업급여(11%), 정부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*(10%), 민간 자선단체의 식료품 지원(8%) 등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응답

*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(SNAP) : 영양가가 높은 식료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매월 제공 (Food Stam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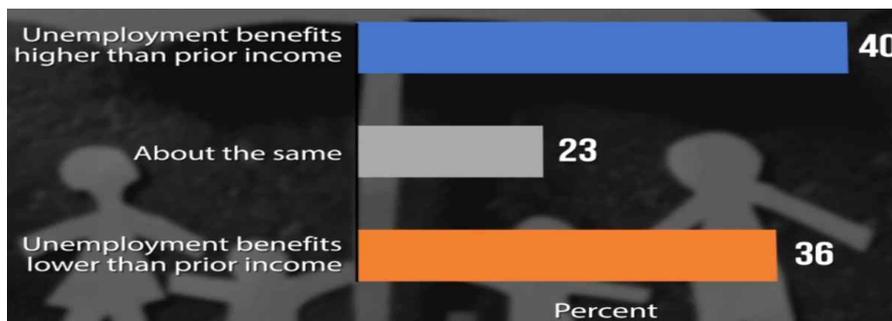
정부 또는 민간 자선단체 금융지원 수혜자 비중



□ (실업급여) CARES Act에 의거 7월말까지 실업수당을 매주 600달러씩 증액 지급함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자의 40%는 2020.2월 급여수준 보다 높은 실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

- 수혜자중 23%는 기존 급여수준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, 36%만이 급여수준보다 낮아졌다고 응답

기존 급여수준 대비 실업수당 수준



□ (주거비 및 공공요금 지원) 전체 응답자중 주거비와 공공요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5% 및 12%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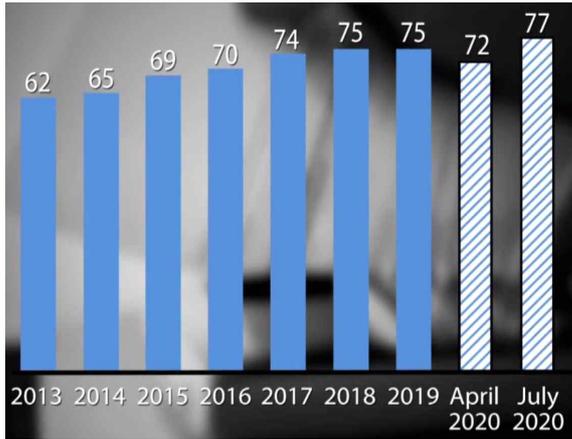
- 현재 주거비 지원을 받는 응답자중 향후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
- 다소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2% 및 19%로 조사

(전반적인 재무상황)

□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고용증가와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등으로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**괜찮다**고(doing at least okay financially) 응답한 비중은 금년 4월 72%에서 77%로 상승

- 이러한 개선은 소득, 인종,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남
(단 흑인은 65% → 64%로 소폭 하락)

전반적인 재무상황이 괜찮다고(doing at least okay financially) 응답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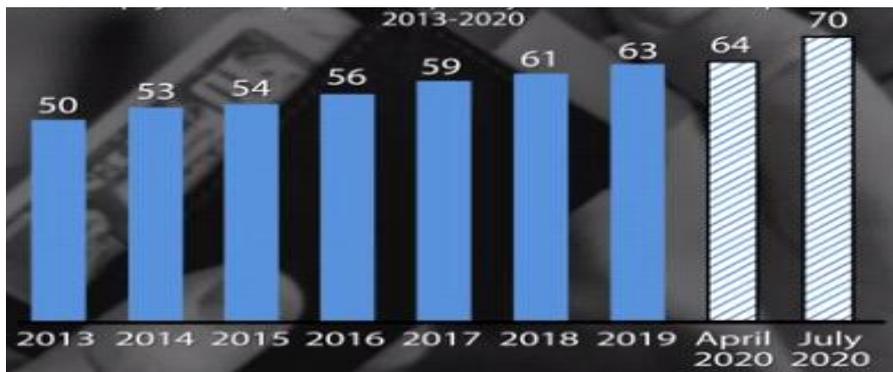


Characteristic	October 2019	July 2020	Change
Family income			
Less than \$40,000	55	56	2
\$40,000-\$100,000	81	84	4
Greater than \$100,000	95	95	0
Education			
High school degree or less	63	64	1
Some college/technical or associate degree	75	77	2
Bachelor's degree or more	88	91	3
Race/ethnicity			
White	79	81	2
Black	65	64	-1
Hispanic	66	69	2
Place of residence			
Metro area	76	77	1
Non-metro area	72	76	4
Overall	75	77	2

- 공과금, 신용카드대금 등을 모두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비중은 2020.4월 81%(2019년 4/4분기 84%)에서 7월 85%로 상승

- 예상치 못한 소액 긴급지출(400달러)을 보유 현금, 예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도 2020.4월 64%에서 7월 70%로 상승

예상치 못한 소액 긴급지출(400달러) 감당가능 비중



(향후 계획)

- 연준은 「2020년 미국 가계 경제상황 및 의사결정 설문(SHED)」을 2020년 4/4분기 중에 실시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계의 고용 및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